

현대 공공 미술관의 사회적 역할에 따른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pace Configuration of Contemporary Public Art Museum in Social Role

권미주* / Kwon, Mi-Ju
김용승** / Kim, Yong-Seung

Abstract

The existing art museums existed for preservation and exhibition of collected material and the work which has artistic value. But today the art museum is not just for preservation and exhibition. It takes charge of public education as opened place to public. Further, it wants to be the art museum that the visitors who visit the art museum can enjoy and participate. The role change of like this is judged with the inevitable result which follows in many social demand. And increase with interest of leisure and culture life and continued demand for education, the role of modern art museum is becoming wider. Like this, to accomplish these roles, space configuration of the modern art museum is changing. In the future, to meet more social demands and to solve flexibly, the modern art museum must concern more spacial efforts.

Therefore, to grasp the change and the aspect of modern art museum, this study analyzes the Jeonbuk Province Art Museum, the Gyeongnam Art Museum and the Gyeonggido Museum of Art, They are most recently opened museum after 2000. To grasp space configuration of these museums, space syntax was used. And with the result which is analyzed, as grasps the problem and suggest an alternative idea, it can suggest advanced and proper direction.

키워드 : 박물관, 미술관, 공간통사론, 공간구성, 축선
Keywords : Museum, Space Syntax, Space Configuration, Axial Line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지난 수세기 동안 미술관은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면서 발전과 변화를 거듭해왔다.

미술관이 지향하는 본래 기능은 예술가치가 있는 자료나 작품을 수집하여 보존·전시하며 나아가 하나의 교육의 장소로서 시민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1980년대 이전까지의 미술관은 작품 수집과 보존·전시하는 기능에는 충실했지만, 교육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데에는 미비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미술관은 보다 적극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했고, 이제 현대적인 의미의 미술관에 기대되어지는 역할은 단순히 보존·전시의 개념이 아닌 시민에게 개방된 대중문화의 장소로서 시민 교육의 역할을 담당하며, 나아가 미술관을 방문하는 방문객

들이 재밌게 즐기며 동참할 수 있는 참여하는 미술관이 되는 것이라 하겠다.

이런 미술관 기능의 확대는 사회적 요구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로 판단되며, 대중들의 여가·문화생활에 대한 관심의 증가와 더불어 계속되는 교육에 대한 욕구가 더해져 현대 미술관이 수행해야하는 역할은 보다 폭넓어지고 있다. 이렇듯 미술관에 기대되어지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미술관의 공간구성 역시 변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키며 그 요구들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미술관은 보다 많은 건축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1.2. 연구의 목적

미술관과 같은 전시시설에 있어서 공간의 경험이란 전시된 지식의 경험이고 동선체계는 미술관에서 관람되어지는 지식을 결정하고 이것이 전달되는 순서를 의미하게 된다. 또한 미술

* 정회원, 한양대학교 건축대학원 석사과정

** 정회원, 한양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공학박사

1) 최윤경·김재연, 미술관의 전시공간의 지식전달체계에 관한 연구, 대한

관의 공간구성은 실질적인 미술관 경험이 관람객이 움직이면서 전시되어 있는 전시품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이루어진다²⁾는 점에서 미술관 계획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점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작업은 공간구성과 관람객의 행위라는 관점에서 이루어져야만 할 것이다.

이렇듯 동선체계는 미술관에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 중 하나이며, 이 동선계획을 위한 공간의 구성은 미술관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에게 미술관이 의도한 것을 더 잘 전달하고 보여주기 위한 물리적인 장치로서 미술관 계획에 있어서 중요하다 할 것이다.

또한 미술관의 사회적 의미와 역할이 확대되면서 사회적 요구에 따라 생겨난 공간들을 평면에서 어떻게 잘 구현해낼 것인가 하는 것 또한 고려해야 할 관건이라 하겠다.

이에 본 연구는 사람들의 움직임을 중심으로 실제 평면상에 나타나고 있는 공간구성의 특성을 분석하여 현대 미술관의 공간구성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미술관 계획시 고려한 공간 개념들이 분명하고 효과적으로(또는 미술관의 의도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의 현대 미술관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생각해보고 미술관 공간계획에 응용할 수 있는 기초적 설계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3. 연구의 대상 및 방법

‘박물관’이라 함은 문화·예술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미술관 중에서 특히 서화·조각·공예·건축·사진 등 미술에 관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하는 시설을 말한다.³⁾

미술관은 예술 작품을 소장하는 전문 미술박물관으로서 박물관이라는 상위 개념에 대한 하위 개념으로 이해⁴⁾해야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박물관과 미술관의 의미를 따로 구분짓지 않기로 한다.

본 연구는 현대 미술관의 변화추이와 그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2000년 이후에 건립된 국·공립 미술관 중 가장 최근에 개관한 경남도립미술관(2004), 전북도립미술관(2004), 경기도미술관(2006)을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 세 개의 미술관이 각 미술관의 원래 목적에 맞게 계획되어지고 사용되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공간구성의 특성을 살펴보고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세 개의 미술관 중 가장 최근에 지어진 경기도미술관의 건축가의 처음 설계안과 지금 실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비교·분석해봄으로써 그 차이를 밝히고자 한다.

건축학회논문집 16권6호, 서울, 2000, p.52

2) 김용승, 미술관 전시공간구성에 관한 기초적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1권 11호, 1995년

3)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전문 개정 1999.2.8 법률 제5928호, 개정 2000.1.12 법률 제 6130호)에서의 정의

4) 이보아, 박물관란 개론, 김영사, 2000, p.18

공간구성의 특성을 파악하는데 있어서는 1차적으로 실제 답사를 하여 조사하고 도면을 분석하는 작업을 하고, 2차적인 분석은 공간분석의 도구로서 정량화된 분석지표인 공간통사론(Space Syntax)를 사용한다.

<표 1> 조사대상 미술관

미술관명	개관년도	규모	연면적	위치
경남도립미술관	2004	지하 1층 지상 4층	5,914.70㎡	경상남도 창원시 대방로1 (사림동)
			1,789평	
전북도립미술관	2004	지상 2층	6,904.81㎡	전북 완주군 구이면 원거리 1068-7번지
			2088.7평	
경기도미술관	2006	지상 2층	8277.80㎡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동산길36 (초지동 667-1)
			2,504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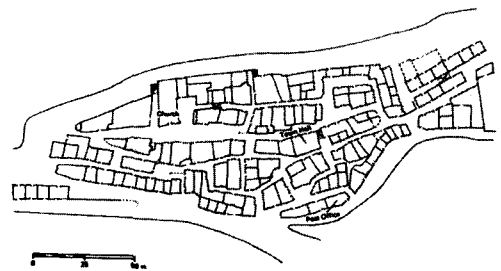
2. 공간통사론의 기본개념 및 분석방법

2.1. 공간통사론의 개념 정의 및 적용

공간통사론(Space Syntax)은 1980년대 런던대학 Bartlett 건축학부의 Bill Hillier와 Julienne Hanson 등에 의해 연구되어 왔으며, 공간구조가 어떠한 사회적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연구방법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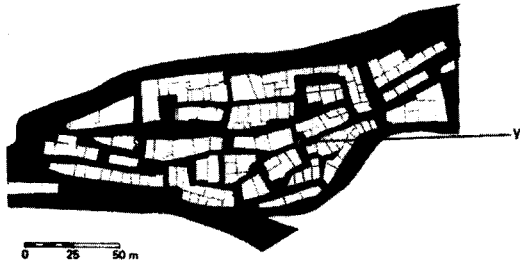
공간은 언어에서처럼 일련의 관계를 가지게 되는데, 대부분 무의식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그 관계들 간의 내재된 속성들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게 되는데, 공간해석방법에 있어서 가시성(Visibility)과 접근성(Permeability)이라는 측면은 가장 일반적인 접근과정이라 할 수 있다.

공간통사론에서 사용하는 변수들은 대부분 각각의 공간과 전체공간체계사이의 길이나 부피보다는 공간사이의 연결성에 의해 공간이 가지는 의미가 달라진다. 이것들은 부분적이라기 보다는 서로 의존적인 일련의 관계성을 가지며 다소 복합적인 전체적 관계성을 설정한다.⁵⁾ 만일, 두 개의 공간사이의 관계성이 존재한다면 그리고 많은 경우에 이중 하나의 공간의 관계가 변화한다면 나머지 다른 관계 또한 먼저 변화되어진 관계성에 따라 변화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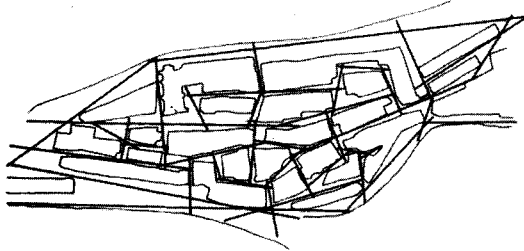


<그림 1>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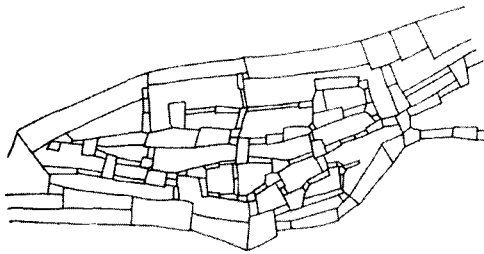
5) B. Hillier, J. Hanson, The Social Logic of Spa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8, pp.150-151



<그림 2> 외부공간



<그림 3> Axial Map



<그림 4> Convex Map

공간통사론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음 제시한 <그림 2~5> 6)에서와 같이 우선 공간의 내·외부를 구분하여 공간축선을 도식화(Axial Map)하여야 한다. 공간을 정량화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축선(Axial line)과 최대영역공간(Convex space)에 의한 방법이 있다. 축선은 가장 멀리 가시할 수 있으며, 접근할 수 있는 연속된 공간을 표현한다. 축선의 연결구조 또는 최대영역 공간의 연결구조 분석을 통해 개별공간이 인접한 다른 공간 또는 전체 시스템과 갖는 공간의 관계성을 정량화 할 수 있다.

공간의 관계성은 연결도(Connectivity), 통제도(Control value), 통합도(Integration)와 같은 세 개의 측정인자를 기본으로 표현되며, 이들 변수들의 상관관계를 통해 공간인지도(Intelligibility)를 측정할 수 있다. 이들 변수들은 배치도에 그려진 공간축선들이 S-Cube 프로그램⁷⁾을 통해 색상으로 표현되는데, 축선의 수치가 높을수록 적색으로, 수치가 낮을수록 군청색으로 표현되어 공간의 관계성을 육안으로도 쉽게 구분할 수 있다.

공간통사론은 시스템으로서의 미술관 공간구성의 특성과 그

속에서 이루어질 관람자의 잠재적 행위패턴을 다양한 변수들의 비교분석을 통해 가상적으로 가시화(simulation)해볼 수 있는 도구로서 사용한다.

(1) 연결도(connectivity)

연결도는 각 축선(axial line)이 의미하는 단위공간에 얼마나 많은 공간이 연결되었는가에 관한 척도⁸⁾이다. 특정 단위공간의 연결도는 그 공간에 직접적으로 연결된 다른 공간들의 개수로서 표시된다. 따라서 한 단위공간의 연결도가 높다는 것은 이 공간이 주변의 다른 공간들과 빈번히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한 단위공간의 연결도가 낮다는 것은 이 공간과 직접 연결된 공간들의 수가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⁹⁾

전체 공간 구조에 있어서 이 연결도가 의미하는 것은 자유롭게 공간을 이동하는 관람객에 있어서 각 단위공간에서 발생될 수 있는 동선에 대한 경우의 수를 의미한다. 즉, 하나의 단위공간에 ‘얼마나 많은 단위공간이 연결되었나’의 문제는 그 공간에서 ‘얼마나 많은 인접한 공간을 선택하느냐’의 문제이고 이는 결국 ‘얼마나 많은 상이한 동선을 유발하는가’의 문제이다.¹⁰⁾

(2) 통제도(Control Value)

특정 단위공간의 통제도는 그 공간에 직접적으로 연결된 주변 공간들과 그 주변 공간들에 영향을 미치는 공간들까지를 포함해서 표현되며¹¹⁾, 일방적인 관계가 아닌 상호적인 관계를 표현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웃한 공간의 수뿐만이 아니라 이웃한 공간으로의 접근 조절정도로 연결도 보다는 한 단계 확장된 개념의 변수이다.

즉, 통제도가 높은 공간은 주변공간에 의해서 보다 많은 통제를 받으며 동시에 주변공간을 보다 많이 통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3) 통합도(Integration Value)

각각의 단위공간에서 전체공간에 얼마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로써 공간깊이에 의해서 산출한다. 한 공간의 통합도는 그 공간에서 다른 모든 공간에 접근하기 위해서 횡단해야만 하는 공간수의 평균값이며 공간의 상대적 깊이를 정량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RA(Relative Asymmetry)로 측정한다.

즉, 특정 공간의 통합도가 높다는 것은 그 공간으로부터 다른 모든 공간으로 이동하는데 적은 전이단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반대로 낮은 통합도는 보다 많은 전이단계를 거쳐 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8) Hillier & Hanson, The Social Logic of Space, Cambridge Univ. Press, Cambridge, 1984, p.103

9) 최윤경, 사회와 건축공간, 시공문화사, 2003, p.21

10) 문정목·임채진, 18세기 이후 유럽의 뮤지엄 건축의 동선체계에 나타난 보편적 경향과 다원적 경향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0권 4호, p.39

11) 최윤경, 사회와 건축공간, 시공문화사, 2003, p.21

6) B. Hillier, J. Hanson, The Social Logic of Spa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8, pp.90-92

7) 서울대학교 도시건축공간분석연구실에서 개발한 공간분석 소프트웨어

(4) 공간의 명료도(Intelligibility)

통합도와 연결도의 상관관계의 분석(regression analysis)을 통한 위상도로 해석되는 명료도는 관람자가 전체공간의 위상적 체계를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의 척도¹²⁾인데 결국, 공간 전체에 있어서 길 찾기의 난이도를 의미한다.

즉, 명료도가 낮을수록 길 찾기가 어렵고 이것은 결국 관람객으로 하여금 혼란스럽지만 다양한 공간적 경험을 가져다준다. 이에 비하여 명료도가 높을 경우, 길 찾기가 쉬우나 관람객에게 단조롭고 획일적인 공간적 경험을 가져다주고 공간전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¹³⁾

미술관 내에서의 공간적 명료도 지표는 관람객이 그 공간 안에서 정향성(Orientation)을 유지하고 길찾기(Way finding)를 가능하게 해주는 중요한 요소로서 작용한다.

(5) 공간의 통제성

통합도(Integration Value) 통제도(Control Value)와 간의 상관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광역적 의미의 컨트롤을 의미하며 지역적 의미의 통제도(Control Value)와는 다르다.¹⁴⁾

통제성이 낮으면 다양한 관람경로의 선택을 침해받지 않는다.

3. 대상 미술관들의 공간구조 분석

3.1. 경남도립, 전북도립, 경기도미술관의 비교분석

경남도립미술관, 전북도립미술관, 경기도미술관의 실제사용 현황을 바탕으로 분석한 값들을 비교 분석해보았다.

(1) 통합도(Integration Value) 수치 비교분석

<표 2> 평균 통합도 비교분석표

	경남도립미술관	비교	경기도미술관	비교	전북도립미술관
평균통합도 (M.I.)	0.79	<	1.05	<	1.33

<표 2>는 각 미술관의 통합도값을 보여주고 있다. 각 미술관에서 단위공간 통합도의 총합을 다시 단위공간의 개수로 나누어 구한 값인 평균 통합도값(M.I.)을 비교해 보았을 때 전북도립미술관, 경기도미술관, 경남도립미술관의 순으로 평균 통합도 값이 높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세 개의 미술관 중 전북도립미술관에서 디자인된 단위 공간들이 전반적으로 다른 두 개의 미술관의 그것보다 상대적으로 빈번히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12) Hillier Bill, Space is the Machine, Cambridge Univ. Press, Cambridge, 1996, p.1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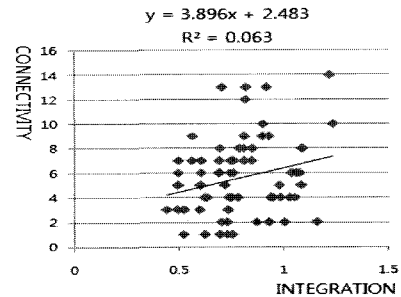
13) 김용승·박정태, 최근 미술관 공간구조의 다양성 수용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7권12호, 서울, 2001, p.35

14) 홍정민, 박물관 건축에서 대공간의 의미와 역할 변화에 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p.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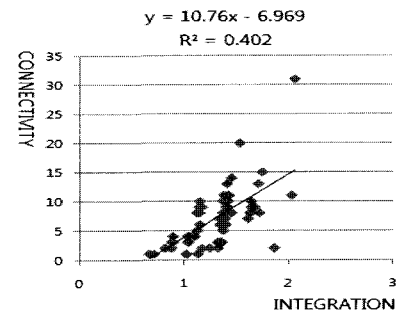
(2) 공간의 명료도(Intelligibility) 비교 분석

<표 3> 명료도(Intelligibility) 비교 분석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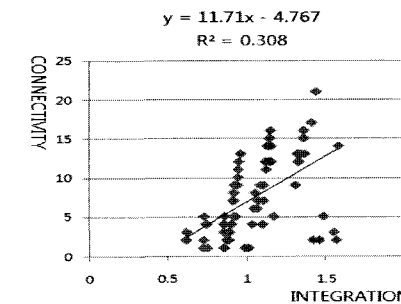
	경남도립미술관	비교	경기도미술관	비교	전북도립미술관
명료도(Intelligibility) (R-Square)값	R ² = 0.063	<	R ² = 0.308	<	R ² = 0.402



<그림 5> 경남도립미술관



<그림 6> 전북도립미술관



<그림 7> 경기도미술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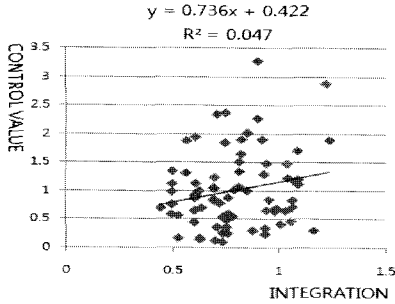
경남도립미술관, 전북도립미술관, 경기도미술관의 공간적 명료도를 알아본 결과 전북도립미술관, 경기도미술관, 경남도립미술관 순으로 공간의 명료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북도립미술관의 관람객들은 공간전체를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단조롭고 획일적인 공간적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경남도립미술관의 관람객들은 길 찾기가 어려워 다소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반면 다양한 공간적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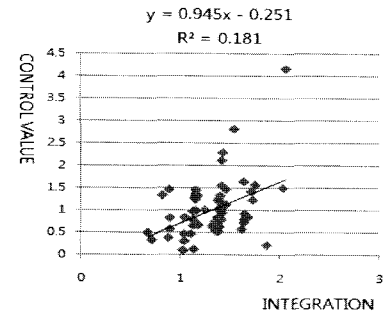
(3) 공간의 통제성 비교 분석

<표 4> 통제성 비교분석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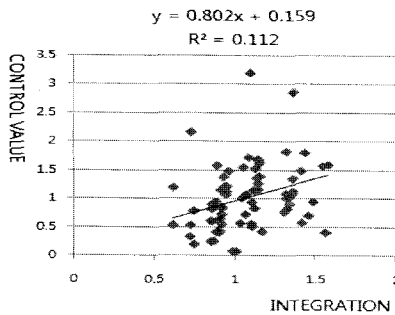
	경남도립미술관	비교	경기도미술관	비교	전북도립미술관
통제성	R ² = 0.047	<	R ² = 0.112	<	R ² = 0.1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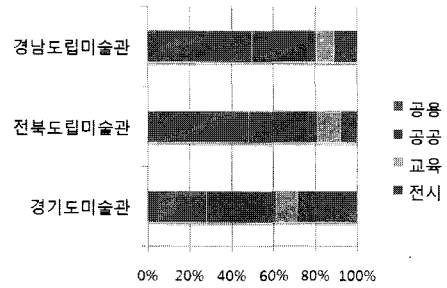
<그림 8> 경남도립미술관



<그림 9> 전북도립미술관



<그림 10> 경기도미술관



<그림 11> 미술관의 영역별 축선(Axial line) 분포

각 미술관들의 공용 부분을 제외한 각 미술관의 영역별 축선의 분포를 살펴보면 공공 영역 부분이 30%이상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술관의 사회적 역할의 증대에 따른 공공 영역 부분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인한 결과로 보여진다.

(5) 소결

세 개의 미술관을 비교·분석한 결과 전북도립미술관, 경기도미술관, 경남도립미술관의 순으로 통합도, 명료도, 통제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각 미술관이 가지는 공간의 특성 때문인 것으로 사료되는데, 도면분석결과 그것은 각 미술관이 가지고 있는 대공간(Major Space)¹⁵⁾의 성격과 역할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각 미술관 공간이 가지는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전북도립미술관은 지상 2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층에 대공간이 적극적 도입된 사례로 대공간에 있는 계단으로 1, 2층이 연결되며 이 대공간이 미술관 전체 공간의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 ② 경기도미술관 역시 지상 2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층에 있는 중앙 로비홀이 2층 높이까지 뚫려있어 대공간의 역할을 하며 중심적인 역할을 하지만 2층에서는 전시홀만 존재할 뿐 1층에 있는 대공간과 연결되며 대공간의 역할을 해주는 공간이 존재하지 않는다.
- ③ 경남도립미술관은 지하1층, 지상4층으로 이루어진 미술관으로 각 층에 로비홀이 존재하지만 각 홀들이 대공간으로 특성화되지 못하고 복도와 같은 역할을 해 구심적인 역할을 해주는 공간이 없으며, 다섯 개 층을 가진 미술관으로 세 미술관 중 가장 층수가 많다.

세 미술관의 공간의 통제성을 비교한 결과 전북도립미술관, 경기도미술관, 경남도립미술관 순으로 공간의 통제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경남도립미술관의 관람객들은 다양한 관람경로의 선택을 침해받지 않고 미술관을 가장 자율적으로 관람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4) 영역별 축선(Axial Line) 분포

다음 그래프는 세 개의 미술관에서 수장, 연구/사무, 관리영역을 제외한 미술관에서 관람객들이 접근 가능한 영역의 공간들을 축선을 그려 나타낸 후, 각각의 축선이 통과하는 실들을 공용, 공공, 교육, 전시의 4가지 영역으로 분류한 후 축선이 각 영역을 지나가는 수를 따져 그것을 비율로 나타낸 것이다. 축선이 많이 지나간다는 것은 그 영역이 사람들에게 노출되어 있어 접근이 용이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 자료로 미술관에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계획하였는지 짐작할 수 있다.

16) 대공간이란 이상립, 김용승, 박용환의 박물관 건축에서 대공간의 기능적 변화와 공간 구성적 특성(대한건축학회논문집 18권 12호, 서울, p.80)이란 논문에서 박물관을 구성하는 전체공간에서 가장 중심적인 공간이라고 정의된 바 있다. 즉 실질적인 크기나 공간의 형상과는 달리 공간구조상 중심성을 지닌 공간을 의미한다. 공간구조상의 중심성이란 모든 관람객의 움직임에 있어서 중심에 위치하며 일종의 상징적인 공간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다.

즉, 대공간은 관람객에게 각 전시장과 전시장을 이동할 때 매개적 공간의 역할을 유지하고 공간의 방향감각 상실을 방지하여 길 찾기의 기준을 제공한다.(김용승, 박물관 전시공간의 형태적 특성과 변화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18권7호, 서울, 2002, p.9)

이러한 각 미술관이 가지는 공간적 특성 때문에 대공간이 중심적 역할을 하는 전북도립미술관은 통합도, 명료도, 통제성이 가장 높게 나타나며, 대공간이 특성화되지 못하고 층수가 많은 경남도립미술관에서는 통합도, 명료도, 통제성이 가장 낮게 나타난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1층에만 대공간이 존재하는 두 미술관의 중간 단계에 있는 경기도 미술관은 통합도, 명료도, 통제성이 두 미술관의 중간값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얻은 결론으로 대공간의 성격과 역할이 미술관의 통합도, 명료도, 통제성 등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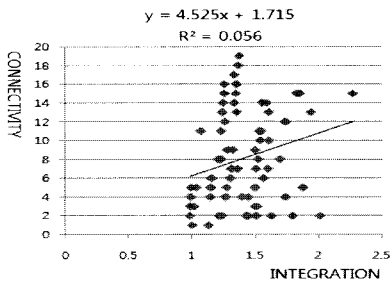
다음 3.2절에서는 경남도립미술관과 전북도립미술관의 중간 단계에 있는 경기도미술관을 더 자세히 조명해 보고자 한다.

3.2. 경기도미술관 건축가설계안과 실제사용 비교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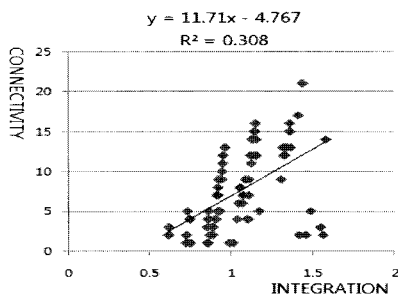
(1) 명료도(Intelligibility) 비교 분석

<표 5> 명료도 비교분석표

	건축가 설계	비교	실제사용
명료도(Intelligibility)	$R^2 = 0.056$	<	$R^2 = 0.308$



<그림 12> 건축가 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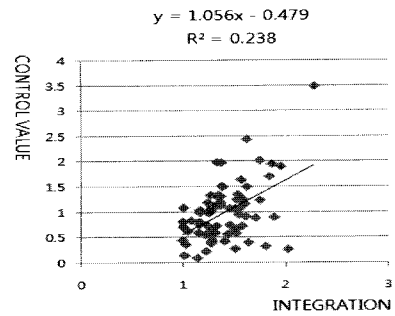
<그림 13> 실제사용

경기도 미술관의 건축가 설계안과 실제사용안의 공간적 명료도를 비교해 본 결과 건축가가 처음에 설계한 설계안보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공간의 명료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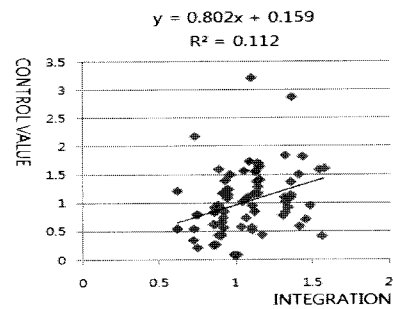
(2) 공간의 통제성 비교 분석

<표 6> 통제성 비교분석표

	건축가 설계	비교	실제사용
공간의 통제성	$R^2 = 0.238$	>	$R^2 = 0.112$



<그림 14> 건축가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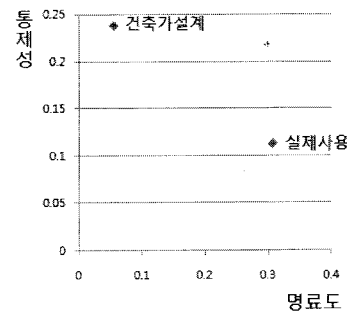
<그림 15> 실제사용

경기도 미술관의 건축가 설계안과 실제사용안의 통제성을 비교해 본 결과 건축가가 처음에 설계한 설계안이 실제 사용안보다 공간의 통제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소결

경기도미술관은 처음에 건축가가 설계한 안과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안이 차이를 가지고 있었다. 이것을 분석하고, 그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다른 점이 무엇인지 밝혀보려는 시도를 했다.

두 안을 분석해 본 결과, <그림 17>과 같이 현재 경기도미술관의 실제 사용안은 건축가가 설계한 안에 비해 상대적으로 명료도는 높아진 반면 통제성은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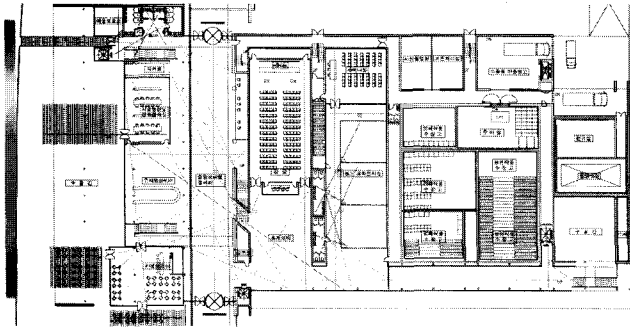
<그림 16> 명료도와 통제도

명료도가 높아지는 것은 방문객이 동선을 찾는 데 어려움을 덜 겪는 것을 의미하며, 통제도가 낮아지는 것은 관람동선 선택의 다양성이 늘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현재 사용안은 건축가 계획안보다 미술관을 처음 방문하는 사람들이 길을 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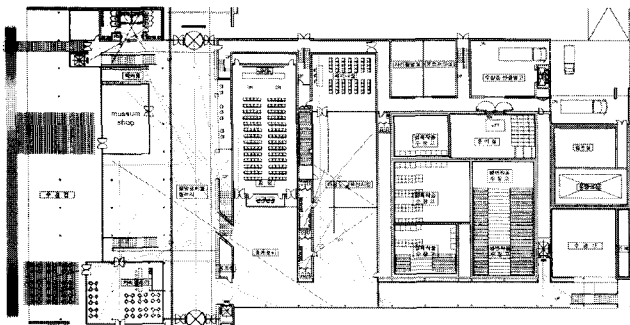
지 않게 하고 보다 관람동선에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게 하는 구성으로 일반인을 위한 공공미술관의 성격에 보다 가까워지는 것을 의미한다.

평면분석을 통해 나타나는 공간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 ① 미술관 1층에서는 자료열람 및 정보검색실이 뮤지엄샵으로 바뀌면서 기존에 있던 출입문 중 하나를 폐쇄하고 다른 쪽으로 출입구를 만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원래 두 곳으로 나있던 강당의 출입구를 하나로 바꿨으며, 다용도 교육전시장의 구획을 달리한 것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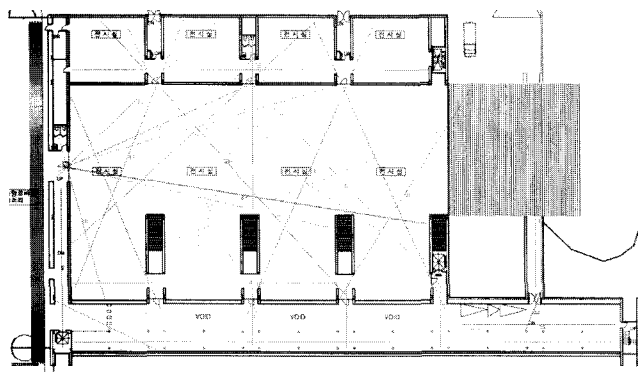


<그림 17> 경기도미술관 1층 건축가 설계 integration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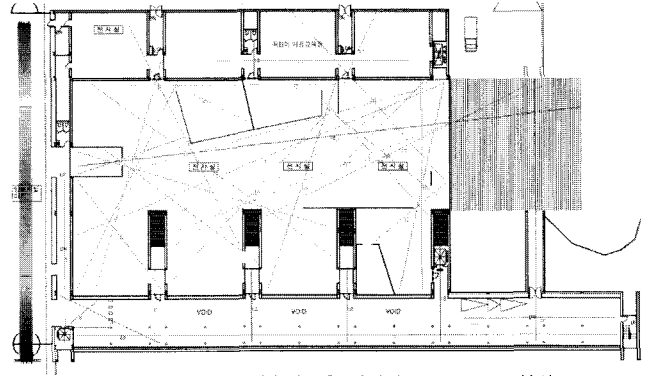


<그림 18> 경기도미술관 1층 실제사용 integration 분석

- ② 2층은 전시를 위주로 계획된 공간으로, 전시실의 성격상 전시의 종류와 전시물의 성격에 따라 공간구획을 달리하여 전시실을 계획하게 되는데, 그래서 건축계획 초기의 안과 실제사용안을 비교하면 전시실의 평면상 구획에 있어 많은 변화가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19> 경기도미술관 2층 건축가설계 integration 분석



<그림 20> 경기도미술관 2층 실제사용 integration 분석

이렇듯 실의 출입구를 몇 군데에 두고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도 공간에서 명료성과 통제성은 변하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앞서 분석한 <그림 12>의 축선(Axial Line)에 의한 분석에서, 경기도미술관이 전시영역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전시공간을 구획하면서 관람객들이 전시공간 안에서 보다 쉽게 공간을 인지하면서도 다양한 관람경로의 선택을 침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배려로 명료도는 높으면서 통제도는 낮게 전시공간을 계획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것은 미술관의 전시내용에 따라 명확한 장단점을 보일 수 있는 공간구조라 말할 수 있다.

4. 결론

한 사회의 박물관/미술관의 존재는 그 사회의 문화적 척도이며 사회 구성원들의 지적 교육적 정도를 가늠하는 기준이 된다. 미술관은 그 시대가 원하는 모습으로 발전과 변화를 거듭해왔으며, 각 시대의 미술관을 살펴보면 그 시대상을 짐작해볼 수 있다.

미술관은 전시물과 관람객 또는 관람객과 관람객 상호간의 공간적 교류를 위한 장소이다. 이러한 교류는 그 교류가 일어나는 미술관의 공간구성이 가지는 특성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같은 전시물을 경험하더라도 미술관이 가지는 공간구성에 따라 관람객이 느끼는 감성과 그 경험은 다를 것이다. 이렇듯 미술관을 설계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교류의 한 가지 형태를 결정하는 것이며 동시에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그 결과물이 가지는 문화적 의미를 창출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대 미술관의 사회적 의미와 역할의 변화에 따른 공간변화와 그 구성을 살펴보기 위해 2000년 이후 건립된 세 개의 미술관들의 공간구성을 분석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축선(Axial Line)에 의한 분석에 의해 현대의 미술관이 중점을 두고 계획하는 부분이 공공부분이라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교육에 대한 높은 인식과 그에 따라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늘어난 면적에도 불구하고, 축선이 지나가는 비율에 대한 분석을 살펴보면 그 공간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시켜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2) 세 개 미술관의 통합도, 명료도, 통제성 비교로 대공간이 미술관에 있어서 상징적인 중심뿐만 아니라, 동선상의 중심으로서 미술관에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경기도미술관의 초기설계안과 실제사용안의 명료도와 통제도의 상관관계를 비교함으로써 이미 계획된 공간이지만 미술관이 추구하는 목적과 필요에 따라 융통성 있게 조율하여 공간을 사용한다면 미술관이 원하는 바에 더 가까운 공간을 만들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현대의 미술관이 추구하는 공공성을 가지면서 각각의 미술관이 설정한 목적에 맞는 전문성과 특성을 갖춘 미술관이 되기 위해 미술관의 계획단계에서 공간통사론(space syntax)의 분석 방법을 통해 공간을 분석해보고 여러 대안들을 비교해본다면, 각 미술관의 목적에 부합하는 미술관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사료된다.

참고문헌

1. 김용승, 박물관 전시공간구성에 관한 기초적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1권 11호, 1995
2. 김용승·박정태, 최근 미술관 공간구조의 다양성 수용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7권12호, 서울, 2001
3. 김용승, 박물관 전시공간의 형태적 특성과 변화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18권7호, 서울, 2002
4. 이상림·김용승, 박용환의 박물관 건축에서 대공간의 기능적 변화와 공간 구성적 특성,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8권 12호, 서울, 2002
5. 홍정민, 박물관 건축에서 대공간의 의미와 역할 변화에 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6. 양승정, 한국 전통마을의 공간적 특징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7. 최윤경·김재연, 박물관의 전시공간의 지식전달체계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6권6호, 서울, 2000
8. 문정복·임채진, 18세기 이후 유럽의 뮤지엄 건축의 동선체계에 나타난 보편적 경향과 다원적 경향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통권 186호, 2000
9. 이보아, 박물관학 개론, 김영사, 2000
10. 최윤경, 사회와 건축공간, 시공문화사, 2003
11. Hillier & Hanson, The Social Logic of Space, Cambridge Univ. Press, Cambridge, 1984
12. Hillier Bill, Space is the Machine, Cambridge Univ. Press, Cambridge, 1995

<접수 : 2007. 10. 22>